

러시아어 이차불완료상화 연구: 시제형태의 빈도수를 중심으로*

이 주 홍**

- 개요 -

본 연구에서는 15개의 삼중쌍 동사들을 선정해 러시아어 국립 코퍼스에서 각 형태에 따른 시제별 빈도수를 조사해 보았다. 특히 과거시제를 바탕으로 일차불완료상과 이차불완료상의 빈도수 차이를 비교해 보면서 이들의 빈도수 차이에 따라 각각 세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에 해당하는 동사들이 문맥에서 나타내는 의미를 조사해 봄으로써 이들의 빈도수 차이와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이차불완료상의 의미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하나의 형태에서 파생관계를 이루고 있는 러시아어의 일차불완료상과 이차불완료상 동사들이, 두 형태의 빈도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대부분 맥락 속에서 상적인 의미만으로 차이가 나고, 반대의 경우에는 어휘적으로 다르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의미차이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러시아어 삼중쌍 동사들의 전체적인 상적-어휘적 의미분포와 그 양상을 거시적으로 조망해 봄으로써 러시아어 동사의 상이 문법성과 어휘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어휘-문법범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 제 어: 러시아어, 동사의 상, 상적 삼중쌍, 코퍼스분석, 빈도수분석, 맥락분석, 어휘-문법범주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111259).

** 성균관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강사.

1. 들어가며

러시아어의 상 연구에 있어 기존의 전통적인 연구들은, 각각의 시제에 나타나는 상의 형태에 따른 의미차이의 연구에 집중하거나(Бондарко 1971; Исаченко 1960), 또는 접두사들로 형성되는 완료상과 기저동사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어 이들 간에 내재하는 다양한 결합관계를 바탕으로 상의 쌍(aspectual pair, видовая пара)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들의 차이를 규명하는 등 주로 의미-형태론적인 관점에서 상의 쌍을 접근해왔다(Зализняк & Шмелев 2000; Петрухина 2009).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불완료상 동사에 접두사가 붙어 만들어진 완료상 동사에 다시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진 이차불완료상(이후 2IMPF로 표기) 형태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또 다른 하나의 쌍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불완료상과 완료상의 본질적인 의미차이 또는 상의미로 대립하는 형태의 여러 유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의 쌍’이 확립되고 이들의 의미 차이들을 비교해야 하는데, 2IMPF가 존재하는 동사들의 경우 하나의 완료상 형태에 해당하는 두 가지 불완료상 형태가 존재하는 소위 상적 삼중쌍(видовые тройки, aspectual triplet)¹⁾의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삼중쌍 동사들에서, 원래의 동사인 일차불완료상(이후 1IMPF로 표기)과 완료상(이후 삼중쌍 관계에서는 PF로 표기) 동사에서 파생된 2IMPF의 의미적 기능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Апресян 1995; Татевосов 2010; Храковский 2005). 이에 따라 원래의 1IMPF 동사와 여기에 접두사가 더해져 만들어진 PF 동사의 관계를 상의 쌍으로 정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접두사가 더해진 PF

1) 심사자 한 분이 삼중쌍(tripl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상이 마치 세 겹이란 의미로 사용되어 3개의 쌍이 나온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기에 용어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나 현재로서는 1IMPF - PF - 2IMPF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룹을 지칭할 적절한 용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есть - съесть - съесть의 경우 есть - съесть / съесть - съесть의 2개의 상의 쌍이 나온다는 의미로 ‘이중상쌍’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이중상(biaspectual)’이라는 용어와도 혼돈이 될 수 있으며 1IMPF와 PF 그리고 2IMPF의 상호관계를 담아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삼중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상적 삼중쌍(aspectual triplet)이라는 용어는 Kuznetsova & Sokolova(2016: 219-222)의 연구에서 가져왔다. 용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들의 연구와 이주홍·홍택규(2021a)를 참고하기 바란다.

동사와 여기서 파생된 2IMPF 동사와의 관계를 상의 쌍으로 정의해야 하는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질적 변화나 부가적 의미 수정이 되지 않고 순수하게 상의 의미만 변하는 것만을 상의 쌍으로 본다면(Исаченко 1954), 후자의 경우가 이러한 상의 쌍의 정의에 보다 근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상적 삼중쌍 현상은 상의 연구에서 가장 기본으로 설정되어야 할 ‘상의 쌍’을 정의하는 문제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현상임에도 많은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어 동사에서 나타나는 상적 삼중쌍이 이렇게 본질적으로 상의 쌍을 정의하고 그 속성을 규정하는 것과 맞닿아 있는데도 상적 삼중쌍에 대한 논의와 연구들은 비교적 최근 들어서야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등장한 연구의 흐름은 주로 구체적인 형태 - 각 동사들의 1IMPF와 2IMPF의 형태들 - 에 따라 하나의 총체적인 코퍼스(corpus)에서 사용되는 총빈도수를 조사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특히 상적 삼중쌍이 러시아어 상 체계 속에 자리잡은 매우 규칙적인 현상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이었다. 일례로 Kuznetsova & Sokolova(2016)는 노르웨이 북극대학(Arctic University)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1,981개의 상적 쌍을 만들어 이들 중 총 733쌍이 상적 삼중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적 삼중쌍이 러시아어에서 매우 생산적인, 나아가 규칙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한다.²⁾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문맥이나 의미적인 고려가 전혀 없이 해당 코퍼스 내 형태 출현 빈도수만을 근거로 하는데 러시아어 상은 단지 형태적인 것으로만 논할 수 있는 문법범주³⁾가 아니라 어휘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어휘-문법적인 범주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만하다. 차후에 구체적으로 논하겠지만, 본 연구자가 코퍼스에서 조사한 예문들 중에

- 2) 이러한 연구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주홍·홍택규(2021a: 39-40)를 참조하기 바란다.
- 3) 심사자 한 분이 상이라는 범주가 문법범주인지 문법화한 범주인지 명확한 개념어를 사용할 것을 지적했다. 기실 문법화라는 것 자체는 문법을 정태적인 체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문법범주인 것과 문법화된 범주 이 둘을 문법화이론에서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기존 러시아어 상 연구에 있어 전통적인 문법범주의 개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문법화 과정으로서의 속성과 어휘-문법적인 범주의 속성을 갖는 러시아어의 상의 속성이 간과되고 있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어의 상이 어휘-문법적인 범주라는 것을 새롭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코퍼스에서 이것이 나타나는 양상을 조망하는 것에 있다.

는 아래 (예1)에서처럼 1ИМРФ хватать와 2ИМРФ схватывать 모두 ‘잡다, 알아내다’로 어휘의미적 차원에서는 동일하고, 2ИМРФ는 1ИМРФ와 비교했을 때 결과적 의미로 상적인 의미차이만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예2)의 경우에서처럼 1ИМРФ делить는 ‘(물리적, 공간적) 나누다’의 의미로 2ИМРФ разделять는 ‘분열되다’의 의미로, 맥락에서 어휘적으로도 서로 다른 의미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예1) Бабы суют ребятишкам пустую грудь, либо торопливо покачиваются с ними, похлопывая, и тянут шею, боком наставляя ухо. И странно, хотя не слышат или хватают с пятого на десятое, но в конце концов схватывают главное. [А. С. Серафимович(1924) *Железный поток*]
 펠리칸들은 새끼들에게 빈 가슴을 찢어 넣고 그들과 함께 부산스럽게 몸을 흔들거나 푸드덕거리며 목을 내놓고 귀를 옆으로 향하게 한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못 알아듣거나 뒤죽박죽으로 알아듣다가(хватают) 결국에는 중요한 것을 알아듣게(схватывают) 되는 경우가 있다.

(예2) Но, кроме конъюнктурных соображений, политикам неплохо бы располагать и внятными убеждениями. В крае уже начали выяснять предвыборные рейтинги партий, проводить соцопросы. Выясняется, что народ у нас делит всю политическую сцену на два лагеря — тех, кто с президентом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их не разделяют), и тех, кто против президент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этому в отрыв ушли «Единая Россия» и КПРФ. [А. Тарасов(2003) “Скажите ясно, кто вы”, *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
 그러나 시국에 대한 판단들을 제외하고도 정치인들에게 명백한 소신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이미 정당들의 선거전 사전 순위를 밝히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모든 정치의 장을 두 개의 진영, 대통령과 정부의 편 – 이 둘은 서로 갈라설(разделяют) 수 없습니다, –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에 반대하는 편으로 나누고(делит)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러시아당과 러시아연방 공산당이 분리되는 길로 가버렸습니다.

앞서 언급한 코퍼스를 바탕으로 한 통계적인 분석법은 맥락상의 상적-어휘적 의미의 미묘한 차이를 잡아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각각의 동사 형태들이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은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분석의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리되 삼중쌍을 이루고 있는 동사들이 실제 맥락에서 나타내는 각각

의 상적의미와 담화-화용적 의미까지 구체적으로 조사해 봄으로 러시아어의 삼중쌍 동사들이 전체 러시아어 상체계에서 어떠한 입지에 있는지, 다시 말해 Kuznetsova & Sokolova가 주장한 것처럼 거의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문법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어휘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는지 그 구도를 개략적으로 살펴려 한다.

기실, 필자는 이 관련으로 러시아어의 삼중쌍 동사들에 대한 공동연구(이주홍·홍택규 2021a; 2021b)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러시아어 삼중쌍 동사들에 대한 논의들을 분석하고 4개의 삼중쌍 동사(читать - прочесть - прочитывать, есть - съесть - съесть, пить - выпить - выпивать, гибнуть - погибнуть - погибать)들의 맥락분석을 바탕으로, 러시아어 상의 삼중쌍 관계는 어휘-문법적인 범주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논증했다. 이 선행 연구에서는 4개의 삼중쌍 동사들만 가지고, 이들이 코퍼스에서 나타내고 있는 문맥적 의미를 자세하고 심도있게 분석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숫자의 삼중쌍 동사들을 선택해 1IMPF와 2IMPF의 빈도수와 맥락에서의 의미차이를 비교해 봄으로 러시아어 상적 삼중쌍 동사들의 총체적인 특성과 어휘-문법적 범주로서 전체적인 동사들의 분포와 큰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연구자들이 비교적 전형적인 상적 삼중쌍으로 분류하고 있는 동사들 중에서 분석 가능한 한도만큼의 동사들을 선정해 그 동사들의 각각의 상형태, 즉 1IMPF와 2IMPF에 따라 각각의 시제에서의 총 사용 빈도수를 러시아어 국립 코퍼스(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рпу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이하 НКРЯ)에서 조사해 보고 두 형태가 함께 나타나는 맥락에서 의미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 구체적으로 상적으로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어휘적으로도 다르게 나타나는지 - 를 조사해 보고 이를 두 형태의 빈도수와 연결시켜 보았다. 이를 통해 러시아어의 상적 삼중쌍 현상에는 순수하게 문법적인 동기뿐 아니라 어휘적인 요소도 존재하며 이들의 역동적인 관계에 따라 다양한 상적인 의미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러시아어의 상 체계가 선행 연구에서의 일반적 견해 이상으로 어휘적인 자질과 상적 자질이 긴밀하게 결합된 역동적인 범주라는 것을 규명하러 한다.

2. 본론

2.1. 상적 삼중쌍의 선택 및 그룹화

러시아어 동사의 상적 삼중쌍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접근법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상적 삼중쌍을 어휘-의미적인 틀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Храковский(2005: 46-59)에 따르면 1ИМРФ이건 2ИМРФ이건 상관없이 두 동사가 조어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동일한 어휘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 둘은 상적 삼중쌍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두 번째 접근은 상적 체계를 기반으로 한 문법적인 접근이다. Зализняк & Микаэлян(2010: 130-136), Зализняк & Шмелев(2000), Петрухина(2009; 2012)에게 상적 삼중쌍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적 의미로, 상의 쌍을 결정하는 요소는 중화 위치에서 사건성의 의미를 갖는지의 여부, 즉 Маслов적 맥락에서 1ИМРФ와 2ИМРФ가 서로 대체 가능한지다.

본 연구의 목적이 러시아어의 상 체계가 전통적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상으로 어휘적 자질과 상적 자질이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개괄하는 것이기에, 어휘적 의미를 고려한 첫 번째 관점에서 상적 삼중쌍을 분류한 것이 아닌 두 번째 관점에서 상적 삼중쌍을 분류한 학자들이 전형적 상적 삼중쌍으로 분류해 놓은 동사들을 (임의로) 선정해 이들을 이루는 1ИМРФ, РР, 2ИМРФ가 НКРЯ에서 각 시제별로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상적 삼중쌍을 이루는 각각의 동사들을 각 시제별로 빈도수를 조사해 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상적 삼중쌍을 이루고 있는 각 동사들과 시제형태와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망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상적 삼중쌍을 이루고 있는 동사들의 전체 빈도수를 비교하는 것보다 각 시제형태의 빈도수를 구분해서 비교해 놓는 것이 맥락분석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만약 한 동사의 빈도수 분포가 각 시제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맥락의 분석에 있어 설사 어느 특정 시제에 대한 맥락만을 분석하더라도 그것을 전체적인 구도로 어느 정도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시제 맥락분석에서 유의미한 설계로 기대된다. 전통적으로 완료상과 불완료상의 상적 쌍의 관계를 상정하기 위해 제안된 역사적 현재와 다회-사건적 의미로의 치환테스트는 현재시제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시제에서는 이 시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의미를 기

반으로 해서 1IMPF와 2IMPF의 미묘한 상적 차이를 살펴보기에 매우 용이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Зализняк & Микаэлян(2010: 135)이 전형적 상적 삼중쌍이라고 분류한 7개의 삼중쌍 동사들(мазать - намазать - намазывать, есть - съесть - съедасть, читать - прочитать - прочитывать, гибнуть - погибнуть - погибать, делить - разделить - разделять, хватать - схватить⁴⁾ - схватывать, комкать - скомкать - скомкивать)과 Петрухина(2012: 91-93)가 상적 삼중쌍으로 분류한 8개의 삼중쌍 동사들(рвать - сорвать - срывать, клонить - склонить - склонять, брить - сбрить - сбривать, копать - выкопать - выкапывать, полоть - выполоть - выпалывать, сморкаться - высморкаться - высмаркиваться, кроить - выкроить - выкраивать, клянуть - выклянуть - выклянчивать)을 선정해 НКРЯ에서 각 시제별 빈도수를 조사한 뒤 2IMPF를 기준으로 1IMPF의 비율, 즉 두 형태의 빈도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조사했다. 그리고 이 조사한 자료에서 과거시제를 기준으로 이 빈도수 차이가 20배 이상이 되는 경우를 A그룹, 1배 이하가 되는 경우(다시 말해 2IMPF의 빈도보다 1IMPF의 빈도가 더 적게 나타나는 경우)를 C그룹 그리고 빈도수 차이가 1배에서 20배 사이로 나타나는 경우를 B그룹으로 분류했으며⁵⁾ 이들 그룹 동사들이 어떤 특성을 지니며, 코퍼스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지 구체적 맥락분석을

- 4) хватать의 경우는 이에 대응하는 완료상 짝으로 хватить를 제시하고 있는 사전 - Е. А. Кузнецов(2001) *Современный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 도 있고 схватить를 완료상 짝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전 - С. Н. Ожегов & Н. Ю. Шведова(1999)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 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위의 두 동사의 상의 쌍의 여부에 대한 논의는 접어 두고, Зализняк & Микаэлян의 분류를 따르고자 한다. 이들이 хватать를 схватить와 상의 쌍으로 본 것은 2IMPF схватывать와의 연관성과 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상적 삼중쌍이 러시아어 문법 체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는 비교적 규칙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염두해 둔 것이라 사료된다.
- 5) 심사자분이 왜 하필 과거시제 빈도수 차이 20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임의적으로 그룹화시켰는지 그리고 혼종적 그룹 (1배 이상 20배 이하라는 자의적 기준에 합치되는) B그룹을 굳이 별개의 그룹으로 설정한 것이 타당한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는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삼중쌍을 이루는 동사들을 그룹화시키는 것 자체에 있지 않고 러시아어 삼중쌍 동사들의 전체적인 의미 분포와 그 양상을 조금이나마 거시적으로 조망해 보는 것에 있다. 다소 임의적이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향후 연구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통해 조사해 보았다. 앞서 현재시제에서의 맥락분석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각 시제별 통계분석을 설계했다고 언급했지만 그룹 분류에서는 과거 시제에서의 빈도수의 차이를 기준으로 분류한 이유는 다른 시제에서와 달리 과거시제에서는 1IMPF의 빈도수가 2IMPF의 빈도수보다 적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그룹으로 나누기에 편리했기 때문이다.⁶⁾

2IMPF와 1IMPF의 빈도수 차이를 기반으로 한 그룹화는, 2IMPF이 1IMPF보다 많이 나타나는 C그룹의 경우에는 상적인 의미차이보다 어휘적인 의미차이가 더 많이 나타나 어휘적인 분화가 되어가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1IMPF가 2IMPF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나타나는 A그룹의 경우에는 반대로 상적인 의미차이만이 잘 드러나는 경우로 어휘적 분화보다는 더 문법적 분화에 가까운 경우라고 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워 보았기 때문이다. 뒤에서 논증하겠지만 구체적인 맥락분석과 함께 통계적인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이러한 가설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 A그룹의 동사들

앞서 2.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그룹은, НКРЯ에서 빈도수를 비교했을 때 과거시제에서 2IMPF의 빈도수에 대한 1IMPF의 빈도수 차이가 20배 이상이 되는 삼중쌍 동사들의 그룹을 말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читать - прочитывать - прочитывать, есть - съесть - съесть, хватать - схватить - схватывать, сморкаться - высморкаться - высмаркиваться, комкать - скомкать - скомкивать 5개의 삼중쌍들이며, НКРЯ에서 각 시제별로 나타나는 빈도수와 2IMPF를 기준으로 산출한 빈도수 차이의 비율은 <표 1.1.>과 같다. <표 1.1.>과 비교를 위해 모든 시제에서의 빈도수를 더한 값을 과거, 현재, 미래 시제 개수의 총합인 3으로 나눈 평균값과 2IMPF 형태를 기준으로 각 형태별 평균값의 비율을 계산한 것은 <표 1.2.>이다.

6) 뒤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겠지만, 과거시제 빈도수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은 몇몇 특정 동사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제에서 나타나는 빈도수 차이의 평균값으로 분류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분류라고 볼 수도 있다.

<표 1.1.> A그룹 동사들의 각 형태에 따른 시제별 빈도수 차이

	과거 시제	빈도수 차이	현재 시제	빈도수 차이	미래 시제	빈도수 차이
читать	47,619	87.85	25,625	72.79	1,588	226.85
прочитать	172				11	
прочитывать	542	1	352	1	7	1
есть	17,232	21.16	467,601	456.19	1,208	120.8
съесть	6,890				3,333	
съедать	814	1	1,025	1	10	1
хватать	12,445	24.02	15,528	18.91	149	49.66
схватить	17,712				1,364	
схватывать	518	1	821	1	3	1
сморгаться	366	45.75	246	49.2	3	
высморгаться	483				15	
высмаркиваться	8	1	5	1	0	
комкать	141	70.5	76	76	3	
скомкать	470				19	
скомкивать	2	1	1	1	0	

<표 1.2.> A그룹 동사들의 각 형태에 따른 총 빈도수의 차이와 시제에 대한 평균값

	총 빈도수	총 빈도수 평균	빈도수 차이
читать	74,832	24,944	83.05
прочитать	183	91.5	0.30
прочитывать	901	300.33	1
есть	486,041	162,013.66	262.86
съесть	10,223	5,111.5	8.29
съедать	1,849	616.33	1
хватать	28,122	9,374	20.95
схватить	19,076	9,538	21.32
схватывать	1,342	447.33	1
сморгаться	615	307.5	47.30
высморгаться	498	166	25.53
высмаркиваться	13	6.5	1
комкать	220	73.33	73.33
скомкать	489	244.5	244.5
скомкивать	3	1	1

<표 1.1.>에서 제시된 과거시제에서의 2IMP와 1IMP의 빈도수 차이에 대한 비율과, <표 1.2.>에서 제시된 전체적인 모든 시제에서의 평균 빈도수 차

이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면 *есть - съестъ - съедать* 삼중쌍을 제외하고는 비율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편의상 과거시제에서의 빈도차이를 기준으로 A그룹을 분류하기는 했지만 이 분류가 코퍼스 내에서의 어느 정도 전체적인 빈도수 비율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⁷⁾

위의 표에서 과거시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2IMPF의 빈도수에 비해 1IMPF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87.85배) 삼중쌍은 *читать - прочитать - прочитывать*이며, 모든 시제에서 평균적으로 빈도수가 가장 높은(262.86배) 삼중쌍은 *есть - съестъ - съедать*이다. Храковский는 이 두 삼중쌍에 대해서 이들 삼중쌍을 이루고 있는 동사들은 모두 사전 기술에서 동일한 어휘소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는 이들이 사용되는 문맥을 볼 때 1IMPF와 2IMPF의 어휘의미는 동일하지만, 2IMPF는 (PF부터 비롯된 상적 의미인) 완결된 사건을 지칭하고 1IMPF는 그런 의미를 지니지 않고 다만 그 사건으로 귀착되는 과정 또는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사건을 지칭하는 점에서만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다(Храковский 2005: 58).⁸⁾

이주홍·홍택규(2021a)에서는, 두 동사가 조어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동일한 어휘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단지 상적으로 표현되는 자질이나 의미만 차이

7) *есть - съестъ - съедать*의 경우에는 과거시제에서의 비율과 전체적인 비율이 10배 이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지만, A그룹을 나눌 때 애초에 과거시제를 기준으로 2IMPF에 대해 1IMPF의 빈도수 차이가 20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전체 시제를 놓고 보았을 때도 지금처럼, 2IMPF에 대한 1IMPF의 빈도수가 20배보다 낮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면 이 동사들을 A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8) 예를 들어, “*Съела она там порядочный завтрак, я не мог пожаловаться; даже отложила журнал, чтоб есть.*(그녀는 저쪽에서 제법 훌륭한 아침식사를 했고, 나는 꾸념을 늘어놓을 수도 없었다. 심지어 그녀는 식사하기 위해 잡지를 한쪽으로 치워놓았던 것이다.)”, “*Мы перешли в столовую, и, то и дело стараясь сказать или спросить что-нибудь безобидное, я съел больше, чем привык съедать, и чувствовал себя с каждой минутой все отвратительней.*(우리는 식당으로 옮겨왔고, 나는 끊임없이 기분이 상하지 않을만한 무언가를 말하거나 물어보려고 노력하면서, 평소 익숙해진 양보다 더 많이 먹었고, 순간순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신이 점점 더 혐오스럽게 느껴졌다.)”라는 문장들에서 *съестъ, съедать*는 완결된 사건을, *есть*는 이 사건으로 귀착되는 과정을 지칭한다는 점만 다를 뿐 어휘의미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2IMPF인 *съедать*는 같은 의미로 완결된 사건을 표현하지만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사건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 난다면 상적 쌍이라고 정의하는 Храковский의 주장을 견지하면서, НКРЯ에 나타난 читать - прочитывать, есть - съесть의 용례 분석을 통해 이들이 실제 코퍼스에서 사용될 때에도 어휘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며 단지 상적인 의미에서만 변별성을 보인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일반적으로 상의 쌍을 구별하기 위해 치환해 보는 Маслов적 맥락, 역사적 현재, 다회-사건적 의미가 나타나는 현재시제를 바탕으로 코퍼스에서 2ИМРФ와 1ИМРФ의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читать - прочитывать, есть - съесть의 경우 1ИМРФ와 2ИМРФ의 문맥상에서 나타나는 의미가 어휘적으로 분화될 만큼은 아니며, 1ИМРФ는 대부분 일반적인 불완료상 동사들이 나타낼 수 있는 무표성, 비한정성, 행위의 시작, 상대적 배경 등의 의미를 지남에 비해, 2ИМРФ는 내적 한계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국면적 묘사, 내적 한계의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양화적 명세화 그리고 1ИМР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경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밝혀냈다. 다시 말해서 читать - прочитывать - прочитывать와 есть - съесть - съесть 삼중쌍에 있어 2ИМРФ 동사는 1ИМРФ 동사로 표현할 수 없는 상적인 의미들⁹⁾을 제시하는 기능은 지니고 있지만 이것이 어휘적으로 달라질 정도까지는 아니며, 2ИМРФ는 러시아어의 상 체계의 한도 내에서 1ИМРФ 동사로 표현될 수 없는 다양한 상적인 의미들을 보조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두 삼중쌍 동사에서 과거시제나 전체 시제에서 2ИМРФ보다 1ИМРФ의 빈도수가 매우 높게 나타난 위의 <표 1.1.>, <표 1.2.>의 수치는 납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그룹의 동사들 중에서, 필자가 공동연구(이주홍·홍택규 2021a)에서 연구해 놓은 데이터가 있는 두 삼중쌍(читать - прочитывать - прочитывать, есть - съесть - съесть)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삼중쌍 동사들(хватать - схватить - схватывать, сморкаться - высморкаться - высмаркиваться, комкать - скомкать - скомкивать)에 대해 НКРЯ에서 20 단어를 사이에 두고 1ИМРФ와 2ИМРФ가 함께 나타나는 맥락을 모두 뽑아 그 맥락 속에서 각

9) 여기서 말하는 상적인 의미는 전통적인 문법에서 완료상과 불완료상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내적 한계의 도달(사건의미), 습관-반복 등과 같은 내적인 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한계에 도달하는 국면적인 의미, 상대적 전경으로 내적 한계를 부각하는 의미 등과 같은 외적인 상으로써의 의미를 말한다. 내적상과 외적상의 의미차이에 대해서는 이주홍·홍택규(2021a: 64-68)의 논의를 참고하기 바란다.

형태가 나타내는 의미들을 상세하게 분석해 보는 작업을 진행해 보았다. 20단어 내로 두 형태가 함께 나타나는 맥락으로 한정지어 분석한 이유는, 자료의 수가 통제가 가능하고 개별 분석이 가능한 한정된 범위 안에서 화자의 사용 동기와 세부적인 의미들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함이다.

세 삼중쌍 동사들 중에서 위의 한정된 조건에서 가장 많은 예문이 나타난 동사는 хватать와 схватывать로 3개의 예(예1, 예3, 예4)가 발견되었고, сморкаться와 высмаркиваться는 한 개(예5)가 발견되었으며, комкать와 скомкивать의 경우 조건에 부합하는 예는 없었다¹⁰⁾.

먼저 хватать와 схватывать가 동시에 나타나는 (예1)을 살펴보자. 이 예문은 펠리칸의 새끼들이 소리를 알아듣고 파악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글이다. 이 맥락에서는 1IMPF хватать 2IMPF схватывать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펠리칸의 새끼들이 행하는 반복적인 행위를 묘사하기 위한 습관 반복의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화자가 펠리칸들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알아듣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중요한 정보를 알아듣게 된다는 것을 묘사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완전히) 알아듣게 되는 그 순간은 2IMPF схватывать를 통해 표현하고, 그 순간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배경설명으로써 (미숙하지만) 동일한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은 1IMPF인 хватать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묘사는 с пятого на десятое(뒤죽박죽으로)라는 속어를 통해 그 의미가 보장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예문에서 хватать, схватывать는 무언가를 붙잡아 알아듣는다는 의미에서 (어휘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1IMPF는 그 알아듣는 행위로의 시도를, 2IMPF는 그 행위로의 도달이 완료된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читать - прочитывать, есть - съесть와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아래 (예3)의 경우에는 화자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맥락인데, 삶과 지식을 경험하고 획득하는 습관반복적인 의미로 1IMPF хватать와 2IMPF схватывать가 함께 사용되었다. 이 예문에서도 두 동사는 모두 ‘획득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어휘의미로 사용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뒤에서는 2IMPF схватывать를 사용함으로써 특별히 모든 지식들이

10) НКРЯ에서 1IMPF комкать와 2IMPF скомкивать가 40단어 사이를 두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지도 조사해 보았으나 이러한 조건에서도 두 형태가 동시에 나타나는 맥락은 발견되지 않았다.

라는 양화적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완전히 획득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앞서 사용된 *хватать*의 경우, 특별히 내적 한계가 한정되는 양화적인 의미가 아닌 일반적 속성을 표현하는 비한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역시 어휘적인 의미로는 동일하고 1IMPF와 2IMPF의 차이가 일반적 속성과 양화적 정보의 강조라는 상적인 의미 차이만을 만들어 내고 있으므로, 이 경우도 앞서 언급한 *читать - прочитывать, есть - съедать*와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예3) Я такого человека еще не видал. Он так легко и весело **хватает** жизнь, **схватывает** все знания, что кажется иногда гениальным, а между тем он обыкновенный янки. Он окончил Оксфорд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пишет диссертацию о группе писателей Retrospective Review (начало XIX в.). Узнав о голоде русских студентов, он собрал в Америке среди Young Men Christian Association изря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долларов, потом достал у евреев (Hebrew Students) небольшой капитал и двинулся в Россию, где сам, не торопясь, великолепно организовал помощь русским профессорам, студентам и т. д. [К. И. Чуковский(1923) *Дневник*]

나는 이러한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다. 그는 매우 쉽고 즐겁게 삶을 살아 내는(*хватает*) 사람이며 모든 지식들을 얻어 버리기에(*схватывает*) 종종 그는 천재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평범한 미국인이다. 그는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했고 19세기 초 *Retrospective Review*의 작가들 그룹에 대한 학위논문을 쓰고 있다. 러시아 학생들의 궁핍함에 대해 알게 된 후에 그는 미국 YMCA에서 다액의 미화를 모았고 유대인 학생들에게서 소소한 자금을 얻어 러시아로 떠났다. 그곳에서 그는 서두르지 않고 스스로 훌륭하게 러시아 교수들과 학생들 등을 원조했다.

(예4)의 경우는 앞의 두 예문과는 다른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아래 예문에서 화자는 일을 할 때에 확실하게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2IMPF *схватывать*를 사용해 사냥개들과 뛰어난 사람들이 (무언가를 끝까지 잡아) 파악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 말하고 있다. 반면 이를 들은 청자는 2IMPF *схватывать*가 아닌 1IMPF *хватать*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면서 화자의 말을 교정해 주고 있다. 청자가 명백하게 했다(*уточнила*)라는 동사와 함께 2IMPF의 사용을 부정하고 1IMPF를 사용을 권장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 맥락에서 청자가 *хватать*와 *схватывать*의 관계를 어휘적으로 다르게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хва-*

тать와 схватывать의 관계가, 앞서 언급한 читать - прочитывать, есть - съесть의 관계와는 달리 상적인 차이뿐 아니라 어휘적으로도 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도 러시아 원어민은 이 맥락에서 이 둘을 완전히 동일한 의미로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 원어민의 경우 хватать는 무언가를 잡는 것(영어로 catch)으로, схватывать는 무언가를 파악하는 것(영어로 grasp)으로 인지하고 있었다.¹¹⁾

(예4) — Вот так, служи. И лови. Собаки и отличники схватывают налету. — Собаки хватают, а не схватывают, — тотчас уточнила Валя. Отредактировала. Она когда-то и в рукописи мужнины заглядывала: пыталась править стиль. — И отличники тоже нынче хватают, — нашелся Степан Васильевич. [М. Чулаки(2002) *Новый аттракцион*]

“자 이렇게 일해서 잡아. 개들과 뛰어난 사람들은 순식간에 파악한다고(схватывают).” “개들은 파악하는(схватывают) 것이 아니라 그냥 잡는(хватают) 것이야.” 바로 그때 발랴가 명백하게 언급했다. 그녀는 언어를 교정했다. 그녀는 언젠가 남자의 수기를 보고 문체를 교정하려 한 적이 있었다. “뛰어난 사람들도 이제는 그냥 잡을(хватают) 뿐이지.” 스테판 바실리에비치가 거들었다.

지금까지 НКРЯ에서 хватать와 схватывать 동사가 20단어 사이 내에서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발견된 총 3가지 맥락을 두고, 각각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의미들을 화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세밀하게 살펴보았는데, 어휘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가 애매한 (예4)를 제외하고는 1IMPF와 2IMPF가 어휘적인 의미는 동일하고 상적 의미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сморгаться와 высмаркиваться의 관계도 전반적인 경향을 따른다. НКРЯ에서 이 두 동사들이 20단어 내에서 연달아 나오는 맥락은 한 개뿐이었지만, 1IMPF сморгаться와 2IMPF высмаркиваться의 어휘의미는 동일하고 이들은 상적인 의미에서만 차이가 난다(예5). 여기서 화자는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전달하는데, 두 동사는 모두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화

11) 물론 이 경우에도 2IMPF схватывать가 хватать와 동일한 의미이지만 잡는 것을 ‘끝까지 완료하다’의 단지 상적인 의미로 인해 ‘무언가를 파악하다’라는 의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대비되는 1IMPF хватать는 단순하게 행위의 시작 국면만을 의미하는 통상적인 불완료상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적인 사건을 언급하는 맥락에서 사용되었고 동일하게 ‘코를 푼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1IMPF *сморгаться*는 코를 푸는 행위의 시작 또는 단순하게 코를 푸는 행위 국면만을 지칭하고 있는 것에 비해, 뒤에 나오는 2IMPF *высмаркиваться*의 경우에는 코를 푸는 행위에 대한 결과가 완료되어 이미 콧물이 나와 코가 완전히 풀린 상황을 의미하고 있다. 역시 이 경우 1IMPF와 2IMPF의 어휘의미는 동일하지만 후자의 경우 어휘의미에 더해 그것을 ‘완전히 또는 끝까지 다하다’라는, 맥락적으로 내적 한계에 대한 기준점이 강조되는 의미를 추가적으로 지닌다.

(예5) Представьте себе: на фоне почти полного благополучия у вас вдруг закладывает нос, причем, когда вы **сморкаетесь**, ничего не **высмаркивается**. Потом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головная боль, тоже как бы необъяснимая. Если это состояние сопровождается высокой температурой, то вы вызываете врача и ложитесь в постель. Если же температуры нет или она не больше 37.1, то, как правило, вы мучительно ждете, когда же пройдет само. [E. Кольцова(2003) “Весенние сюрпризы”, 100% здоровья]

“저의 완전하게 건강한 상태에서 갑자기 코가 막히고 게다가 코를 풀었는데(*сморгаться*)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высмаркивается*) 상상해 봅시다. 그 다음에는 두통이 오고 그 두통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고열이 동반된다면 의사를 부르고 침대에 누우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열이 없거나 37.1도보다 높지 않다면, 보통 그렇게 하듯이, 고통스럽겠지만 저절로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A그룹의 삼중쌍 동사들 중, 이주홍·홍택규(2021a)에서 다루지 않은 3개의 삼중쌍 동사들을 이루고 있는 1IMPF와 2IMPF의 맥락적 의미가 НКРЯ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코퍼스에서 조사된 맥락이 한정적이고 그 예문들의 수가 그리 많지는 않아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주홍·홍택규(2021a)의 논의와 본 연구에서 조사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볼 때 다른 그룹에 속한 동사들에 비해 A그룹에 속한 동사들은 전형적인 상적 삼중쌍으로 인정되는 *читать - прочитать - прочитывать*, *есть - съесть - съесть*와 같이 확고하게 상의 삼중쌍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3. C그룹의 동사들

앞서 2.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그룹은, НКРЯ에서 빈도수를 비교했을 때 과거시제에서 2IMPF에 대한 1IMPF의 빈도수 차이가 1배보다 적은 삼중쌍 동사들, 다시 말해 과거시제를 기준으로 2IMPF의 빈도수보다 1IMPF의 빈도수가 더 적게 나타나는 그룹을 말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делить - разделить - разделять, клонить - склонить - склонять, гибнуть - погибнуть - погибать* 이렇게 세 개의 삼중쌍들이며, НКРЯ에서 각 시제별로 나타나는 빈도수와 2IMPF를 기준으로 산출한 빈도수 차이의 비율은 다음 <표 2.1.>과 같다. 그리고 이것과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서 모든 시제에서의 빈도수를 더한 값을 과거, 현재, 미래 시제 개수의 총합인 3으로 나눈 평균값과 2IMPF 형태를 기준으로 각 형태별 평균값의 비율을 계산한 것이 아래 <표 2.2.>이다.

<표 2.1.> C그룹 동사들의 각 형태에 따른 시제별 빈도수 차이

	과거 시제	빈도수 차이	현재 시제	빈도수 차이	미래 시제	빈도수 차이
делить	2,610	0.97	2,005	0.51	133	3.69
разделить	3,061				949	
разделять	2,675	1	3,882	1	36	1
клонить	377	0.68	810	1.57	5	0.29
склонить	1,869				117	
склонять	549	1	515	1	17	1
гибнуть	1,155	0.89	3,627	1.24	38	1.5
погибнуть	19,479				4,403	
погибать	1,284	1	2,913	1	24	1

<표 2.2.> C그룹 동사들의 각 형태에 따른 총 빈도수의 차이와 시제에 대한 평균값

	총빈도수	총빈도수 평균	빈도수 차이
делить	4,748	1,582.66	0.72
разделить	4,010	2,005	0.91
разделять	6,593	2,197.66	1
клонить	1,192	397.33	1.1
склонить	1,986	993	2.75
склонять	1,081	360.33	1
гибнуть	4,820	1,606.66	1.14
погибнуть	23,882	11,941	8.48
погибать	4,221	1,407	1

<표 2.1.>에 나타나 있는 과거시제에서의 2IMPF와 1IMPF의 빈도수 차이에 대한 비율과 <표 2.2.>에서 볼 수 있는 전체적인 모든 시제에서의 평균 빈도수 차이에 대한 비율을 비교해 볼 때 삼중쌍 *делить - разделить - разделять*의 경우 이 두 경우에 대해 모두 1보다 작은 수치(각각 0.97, 0.72)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이 동사들의 경우에 전체 코퍼스에서 1IMPF보다 2IMPF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клонить - склонить - склонять, гибнуть - погибнуть - погибать*의 경우 과거시제에서는 1IMPF의 빈도수보다 2IMPF의 빈도수가 적게 나타났지만(각각 0.68, 0.89), 모든 시제에서의 빈도수 차이에 대한 평균 비율은 1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각각 1.1, 1.14). 그러나 1.1 배와 1.14 배의 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치는 거의 1에 근접한다. 이 말은 이 동사들의 경우에 전체 코퍼스에서 평균적으로 1IMPF와 2IMPF가 거의 동등한 빈도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의 수치들을 종합해 볼 때, 편의상 과거시제를 바탕으로 그룹화했지만 이 C그룹의 삼중쌍 동사들은 2IMPF가 1IMPF보다 더 많이 사용되거나 거의 동등한 빈도로 사용되는 삼중쌍 동사들이라고 볼 수 있다.

C그룹에 해당하는 동사들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특징은 특정 사전에서¹²⁾ 1IMPF와 2IMPF의 의미가 다르다고 기술된다는 점이다. 1IMPF의 경우는 주로 물리적이고 일차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 반면에 2IMPF는 주로 1IMPF의 의미로부터 파생된 비유적이거나 이차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삼중쌍을 이루고 있는 동사들의 상의 쌍의 관계에 대해서 사전들마다 서로 다르게 기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¹³⁾이라는 특징도 있다.

먼저 *делить - разделить - разделять* 삼중쌍을 살펴보면, Даль 사전 – В. И. Даль(1863)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живого великорусского языка*, 이후 Даль 사전으로 표기 – 에서 *делить*는 *разлагать на части*(부분으로 나누어 놓다), *дробить*

12) 특정 사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전들마다 관점에 따라 각 동사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서술하는 방식이 다르고, 특히 같은 삼중쌍을 이루는 동사들이더라도 어떤 사전에서는 1IMPF와 2IMPF의 의미를 거의 같게 서술하기도 하고 어떤 사전에서는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서술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전과 그 서술 방식에 대해서는 본문과 각주에 모두 소개하도록 하겠다.

13) 3개의 삼중쌍 동사들 중에서 1개의 경우(*клонить - склонить - склонять*)를 제외하고 2개의 경우 모두 사전들에 따라 상의 쌍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할 것이다.

(쪼개다), *раздроблять*(분쇄하다) 등의 물리적인 나눔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반면 *разделять*는 *равнять надел поровну, или по иным отношениям*(평등하게 토지 분배를 하거나 다른 관계들에 따라 나누어 주다)라는 물리적 나눔의 의미에서 좀 더 확장된 추상적인 분배의 의미도 지닌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 차이는 Кузнецов 사전 – С. А. Кузнецов(1999) *Современный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이후 Кузнецов 사전으로 표기 – 에서도 유사하게 기술되고 있다. 이 사전에서 *разделять* 동사는 *делить* 동사와는 달리 물리적인 나눔의 의미 외에도 *лишить связи, общения с кем-л., сделать далеким, чуждым друг другу*(누군가와 관계나 교제를 끊어버리다, 서로 남남이 되다), *пережить, испытать вместе с кем-л.*(누군가와 함께 느낌이나 상태를 경험하다),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чему-л., выразить согласие, проявить единодушие с кем-л. в чём-л.*(무언가에 찬성하다, 찬성을 표하다,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에 일치를 표하다) 등의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나눔의 의미를 더 지니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편 Ожегов 사전 – С. И. Ожегов & Н. Ю. Шведова(1999)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이후 Ожегов 사전으로 표기 – 에서는 이들 동사들 간의 의미차이가 앞서 소개한 두 사전들과 조금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이 사전에서는 앞서 Кузнецов 사전에서 *разделять* 동사만 지니고 있다고 서술되어 있는 ‘누군가와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다’라는 의미를 *делить* 동사도 지니고 있다고 기술한다. 다만 다른 사전의 기술과 달리, Ожегов 사전에서 *разделять*는 *выразить согласие с кем-чем-н.*(누군가와 찬성과 일치를 표명하다)라는 의미를 추가적으로 지닌다고 기술하고 있다. 세 사전들은 의미 기술에 있어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2IMPF *разделять*가 1IMPF *делить*에 비해 추상적이고 확장된 의미를 더 지니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상의 쌍의 관계에 있어서는 Даль 사전과 Кузнецов 사전은 *разделить*와 *разделять*를 완전한 상의 쌍으로 보는 데 반해, *делить*는 마치 별개의 어휘처럼 기술하고, 반면에 Ожегов 사전의 경우 *делить*는 ‘물리적이거나 수학적으로 나누다, 분배하다’의 의미와 ‘누군가와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다’의 의미에서는 *делить*와 *разделить*를 상의 쌍으로, ‘누군가의 의견에 찬성하다’라는 의미에서는 *разделить*와 *разделять*를 서로 상의 쌍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клонить - *склонить* - *склонять*의 사전상 기술을 살펴보면, Ожегов 사전의 경우 *клонить*는 *пригибать книзу*(아래로 굽히다, 숙이다), *влечь, тянуть*(보통 무인칭 구문에서 누가 무언가에게 끌리다, 마음을 끌다), *обиняком,*

намеками или постепенно направлять речь, дело к чему-н.(암시나 힌트들로 또는 점차적으로 담화나 일을 무언가로 향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물리적으로 숙이거나 굽히는 것’의 의미와 이러한 의미가 ‘마음이나 담화 등을 이끌다’는 추상적 의미로 확장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반면 *склонять*의 경우 *подчиниться*, *поддаться* чему-н.(종속하다, 동의하다), *отдать дань уважения, благодарности* (존경과 감사의 경의를 표하다), *убедить в необходимости какого-н. поступка, решения*(누군가에게 어떤 결정이나 행위의 필요성을 납득시키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는 *клонить*가 지니고 있는 ‘마음이나 담화 등을 이끌다’는 의미에 비해 조금 더 이차적이고 심리적인 결과적 의미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Кузнецов* 사전에서도 역시 두 동사의 이러한 차이에 대해 유사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 사전에서도 *клонить*는 (물리적으로) ‘구부러뜨리거나 기울이다’의 의미와 *одолевать* кого-л.(누군가를 사로잡다), *влечь* (마음을 끌다), *направлять к чему-л. определенному, заранее задуманному (действию, разговоры, ...)* (사건이나 대화를 이미 마음먹은 어떤 정해진 상태로 이끌다)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기술된 데 반해, *склонять*의 경우 *убедить в необходимости чего-л., добиться согласия на что-л.*(무언가의 필요성을 납득시키다, 무언가에 대한 동의를 얻다)의 의미를 지닌다고 기술하고 있다. 두 사전의 서술을 종합해 볼 때, *клонить*는 물리적으로 기울어짐을 뜻함과 동시에 어떤 대상으로 끌고가는 것 또는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상태로 의미가 확장된 데 반해, *склонять*는 후자의 확장된 의미에서 나아가 어딘가에 종속시키고 납득시키고 동의를 얻는다는 더 이차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뜻을 지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¹⁴⁾

상의 쌍의 관계에 관해 *клонить* - *склонить* - *склонять*의 경우 *Даль* 사전과 *Кузнецов* 사전 그리고 *Ожегов* 사전 모두 *склонить*와 *склонять*를 상의 쌍으로, *клонить*는 별개의 어휘로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гибнуть* - *погибнуть* - *погибать*의 사전상 기술을 살펴보자. 이들 동사들의 사전상의 기술에 대해서는 이주홍·홍택규(2021b)에서 자세하

14) *Даль* 사전의 경우에는 *склонить*와 *склонять*만을 상의 쌍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клонить*와 *склонять*가 지닌 의미는 거의 유사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 다만 *склонять*는 *клонить*에 비해 ‘*опускать*(내려주다)’, ‘*понижать*(낮추다)’, ‘*свесить*(숙이다)’라는 의미를 더 지니고 있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게 다른 바 있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여기에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Кузнецов 사전에서 *гибнуть*는 *подвергаться гибели, уничтожению, полному разрушению и т.п.*; *погибать*(파멸, 멸망, 완전한 붕괴에 이르다; 파멸하다), *проходить бесплодно, безрезультатно*(헛되이, 성과 없이 사라지다), *бесполезно растрачиваться*(아무 쓸모 없이 낭비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 반면에, *погибать*는 *подвергнуться гибели, уничтожению* (обычно при катастрофе, бедствии и т.п.) (보통 재난이나 사고로 죽음, 파멸에 이르다), *умереть* (обычно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смертью)(보통 횡사하다), *не получить развития* (о таланте, призвании)(재능이나 직무능력에 있어 발전이 없다) 등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погибать*가 *гибнуть*에 비해 사고나 재난 등으로 인한 죽음이나 파멸 또는 외적인 힘에 의한 죽음이나 파멸이라는 의미에서 더 현저하며, 이차적인 의미로는 ‘재능이나 직무능력에서 발전이 없다’는 의미로도 사용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한편 Даль 사전의 경우에, Кузнецов 사전보다는 *гибнуть*와 *погибать*의 의미들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으로 기술하지만, *погибать*는 *гибнуть*에 비해 *теряться*(잃게 되다), *о человеке умирать или терять жизнь при каком бедствии, случайности*(재난이나 우연적인 사건으로 사람이 죽거나 생명을 잃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본다. 반면, Ожегов 사전의 경우에는 *гибнуть*와 *погибать*를 완전한 동의어로 간주한다.

상의 쌍의 관계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Даль 사전과 Кузнецов 사전 모두 *погибнуть*와 *погибать*를 상의 쌍의 관계로 기술하고 있고 *гибнуть*는 이에 해당하는 완료상을 별도로 표시해 놓지 않고 있음에 반해, Ожегов 사전에서는 *гибнуть*에 해당하는 완료상은 *погибнуть*이며 *погибать*는 *гибнуть*와 동의어로 기술한다. Ожегов 사전에서는 *гибнуть*, *погибнуть*, *погибать*를 상적 삼중쌍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상의 쌍을 *гибнуть*와 *погибнуть*로 보고 있는 것 같다.

2.3.에서는 C그룹에 해당하는 삼중쌍 동사들을 이루고 있는 1IMP와 2IMP 동사들이 사전기술 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사전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전반적으로 C그룹에 해당하는 1IMP는 주로 물리적이고, 비유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은 일차적인 의미들을 지니는 것으로 기술된 반면, 2IMP의 경우는 대부분 1IMP의 의미로부터 파생된 비유적이거나 이차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전상의 기술이 실제 러시아어 코퍼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2.2.에서 언급한 방법, 즉 НКРЯ에서 20단어를 사이에 두고 1IMPF와 2IMPF가 동시에 나오는 맥락을 찾고 그 안에서 두 형태가 지니는 구체적인 의미를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C그룹에 해당하는 삼중쌍 동사들의 맥락 의미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делить - разделить - разделять* 삼중쌍의 경우 20단어를 사이에 두고 *делить*와 *разделять*가 동시에 나타나는 맥락은 (예2)와 (예8) 총 2개였다.

(예2)의 경우, *делить*는 목적어인 정치적인 장(*политическая сцена*)을 (물리적 공간적인 의미로) 두 진영으로 나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에 비해, *разделять*의 경우에는 정치적 집단으로 분열되는 ‘(무리 등을) 갈라놓다’의 의미로, *делить*의 의미보다는 더 추상적이고 개념화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Зализняк & Микаэлян은 다음 (예6), (예7)에서처럼 *делить*, *разделить*, *разделять* 동사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나누다’라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지만, ‘(무리 등을) 가르다, 갈라놓다’의 의미일 때에는 *разделить*의 불완료상으로 *разделять*만 가능하고, ‘(유산 등을) 나누다’의 의미일 때는 *разделить*의 불완료상 짝은 *делить*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Зализняк & Микаэлян 2014: 28), (예2)는 이러한 주장의 실례라 하겠다.

- (예6) a. И тут их **разделили** толпа.
바로 그때 그들을 군중이 갈라놓았다.
b. И тут их **разделяет**/***делит** толпа.
바로 그때 그들을 군중이 갈라놓는다.
- (예7) a. Братья **разделили** наследство и разъехались.
형제들이 유산을 나누고는 헤어졌다.
b. Братья **делят**/***разделяют** наследство и разъезжаются.
형제들이 유산을 나누고는 헤어진다.

(예8)에서 먼저 나온 *разделять*는 고통과 소멸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맥락 안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의미를 말한다면 ‘나누다’는 의미보다는 ‘공유한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게 사용되고 있다¹⁵⁾. 이런 점에서 위 사전분석에서 언급된, *делить*에 비해 *разделять*가 더욱

15) 이주홍·홍택규(2021b: 41, 54)에서는, 이와 같이 ‘나누고, 분할한다’는 의미의 *раз-*

더 이차적이고 추상적이고 확장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과 부합하는 듯 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делить*의 의미도 또한 이와 동일한 의미, 즉 모욕을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위에서 살펴본 사전분석의 내용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반례로 보인다. 하지만 (예8)에서 나타나는 *делить*의 용례를 유표성이론의 관점에서 생각해 중화(neutralization)의 사례, 지시잠재성(reference potential)의 측면에서 무표향 *делить*가 통상 유표향 *разделять*로 표현된 의미를 지칭하고 있는 사례로 본다면 이 사례를 앞서 논의했던 사전분석의 반례로 간주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사료된다.¹⁶⁾ 아래 (예8)에서 *разделять*가 먼저 사용돼 이미 ‘나눔’의 의미가 ‘공유’의 의미로 확장된 상태에서 그 뒤에 나오는 무표향 *делить*가 유표향인 *разделять*가 나타내는 의미까지 가리킨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8) Но Она, великая Молчальница, которая духовно **разделяла** со Христом и Гефсиманское Его томление, и истощание крестное, **делила** ли Она с Ним и эту скорбь Его о народе жестоковыйном и ярости христоубийственной даже до самоотречения: “кровь Его на нас и на чадах наших”? Можно ли об этом даже и спрашивать? Она не меньше,

делять 동사가 이와는 나눔의 방향이 반대인 ‘공유/동의’로서의 ‘나눔’의 의미까지 지닐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 함께 양립하고 있다’는 Lotman(1992)적 의미의 수사 개념으로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나눔으로서의 공유/동의’의 의미는 *разделять*만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한 바 있으나, 코퍼스에 이러한 의미가 실제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

- 16) 심사자 한 분이 *делить*가 무표향이고 *разделять*가 유표향이라면 무표범주가 분포적으로도 더 넓게 나타나야 하는데 이 그룹의 경우 유표향인 *разделять*가 더 많은 양적 분포를 보이기에 예외적이라고 지적했다. 심사자 의견에 따르면 필자는 형태론적 기준을 의미에 그대로 적용하지만 무/유표의 양적 범위를 따진다면 이 그룹에서는 2IMPF가 1IMPF의 의미를 포괄해야 타당하므로 본문의 서술은 다소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유표향보다 무표향의 빈도수가 많아야 한다는 것은 데이터가 충분히 많거나 이를 총괄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합당한 주장이라고 본다 – 예를 들어 러시아어 전체 코퍼스에서 무표향인 불완료상 동사의 빈도수는 유표향인 완료상 동사에 비해 많다(이주홍 2018: 146). 본 논문에서도 C그룹 3개의 동사들을 제외한 12개의 동사들에서는 무표향인 1IMPF가 유표향인 2IMPF에 비해 빈도수가 더 많다. 그러나 *делить* - *разделять*가 빈도수 측면에서 역전이 보이는 것은 오히려, 다른 그룹에 속한 동사들에 비해 새로운 어휘로 분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심사자의 꼼꼼한 심사에 감사드린다.

но даже более, чем Он, принадлежала этому христоносному и христу-убийственному избранному народу Божию. [С. Н. Булгаков(1915) *Судьба Израиля как крест Богоматери*]

그러나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겐세마네의 고통과 십자가의 소멸을 함께 나눈(разделять) 위대한 침묵자이신 성모님이 잔인한 유대민족에 대한 그리고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있다’고 스스로를 운명 짓게 만든, 그리스도를 죽이는 분노에 대한 이 모욕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눈(делить) 것일까? 이것에 대해 과연 물음을 제기할 수 있거나 한가? 성모님은 심지어 그리스도를 낳고 그리스도를 죽인 이 선택된 민족에 그리스도보다 더 속해 있었다.

다음으로 *клонить* - *склонить* - *склонять* 삼중쌍의 경우에는 20단어를 사이에 두고 *клонить*와 *склонять*가 동시에 나타나는 맥락은 (예9) 한 개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예9)의 경우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клонить*도 (물리적으로) 밀밭을 ‘숙이게 하다’의 의미로, *склонять*도 동일하게 터번들을 ‘숙이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두 동사가 동의어로 사용되었고 다만 뒤에 나오는 2IMP의 상적인 의미¹⁷⁾로 인해 앞에 나온 밀밭이 숙이는 것이 배경이고 터번들이 숙이는 것이 전경처럼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예9)의 경우 맥락상 터번들을 숙이게 하는 것이 완전히 물리적으로 터번들이 숙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터번을 쓴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는 것, 다시 말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의미를 제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기에 이 두 동사가 완전히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고, 뒤에 나오는 *склонять*는 좀 더 비유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9) <..> Вот идет в белом бурнусе араб, и свисают с головы по обе стороны до земли две вязанки красного перца; как красное вино, горят прозрачные стручки, пронизанные закатными лучами склоняющегося солнца... Вон среди пустыни, опустившись на колени рядом с лежащим

17) 여기서의 상적인 의미도 전통적인 문법에서 완료상과 불완료상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내적 한계의 도달(사건의미), 습관-반복 등과 같은 내적인 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한계에 도달하는 국면적인 의미, 내적 한계의 기준점을 잡아주는 양화적 의미, 상대적 전경으로 내적 한계를 부각하는 의미 등과 같은 외적인 상으로써의 의미를 말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верблюдом своим, оборотившись к заходящему солнцу, творит вечернюю молитву бедуин... И каждый день вечерний час, как дуновенье ветра **клонит** покорную ниву, **склоняет** под молитву покорные чалмы, и Восток, преклонив колена, молится на Запад... Вслед уходящему солнцу пойдем и мы. [С. М. Волконский(1924) *Мои воспоминания*]

여기 두건 달린 흰 옷을 입은 아랍인이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머리로부터 양쪽 방향으로 땅에까지 붉은 고추 두 다발이 축 늘어져 있다. 마치 적포도주처럼, 지는 해의 석양 빛에 스며든 투명한 꼬투리들이 마치 적포도주 같이 타오르고 있다... 저기 사막 한가운데서, 누워 있는 자신의 낙타와 함께 무릎을 꿇고 지는 해를 바라보며 베두인 한 사람이 저녁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마치 바람의 숨결이 순종적인 밀밭을 숙이게 하듯(клонит) 매일 저녁의 기도 시간은 기도하는 순종적인 터번들을 숙이게(склоняет) 만든다. 그리고 동쪽은 무릎을 꿇고 서쪽으로 기도한다... 지는 해를 따라 우리들도 떠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гибнуть* - *погибнуть* - *погибать* 삼중쌍 경우, 20단어를 사이에 두고 *гибнуть*와 *погибать*가 동시에 나타나는 맥락은 총 25개 발견되었다. 이주홍·홍택규(2021b: 38-43)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총 25개의 맥락 중 20개의 맥락에서 *гибнуть* 동사는 *погибать*와는 구별되게 일상적인 의미의 죽음/파멸이나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원인에 의한 죽음/파멸을 의미했다. 나머지 5개의 맥락은 *погибать*와의 의미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는 모두 *погибать* - *гибнуть*의 어순으로 등장한 경우로, 이미 (예8)을 설명하면서 언급했던 중화의 용례였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гибнуть* - *погибать*의 사용을 제외하고는 코퍼스에서 많은 용례가 발견되지 않아 완전히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C그룹에 속한 삼중쌍의 경우 2IMPF의 의미는 1IMPF에 비해 보다 추상적이고 간접적이며 메타포적으로 확장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어느 정도 어휘적으로 분화된 형태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C그룹의 동사들은 상적 삼중쌍으로 간주하기에 다소 난해할 수 있다.

2.4. B그룹의 동사들

2.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B그룹은 НКРЯ에서 빈도수를 비교했을 때 과

거시제에서 2IMPF의 빈도수에 대한 1IMPF의 빈도수 차이가 1배보다는 크고 20배보다는 적은 삼중쌍 동사들, 다시 말해 A그룹에도 C그룹에도 해당하지 않는 중간영역에 위치한 동사들을 말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рвать - сорвать - срывать, копать - выкопать - выкапывать, брить - сбрить - сбривать, мазать - намазать - намазывать, полоть - выполоть - выпалывать, кроить - выкроить - выкраивать, клянить - выклянуть - выклянчивать 이렇게 7개의 삼중쌍들이다. НКРЯ에서 이 동사들의 각 시제별로 나타나는 빈도수와 2IMPF를 기준으로 산출한 빈도수 차이의 비율은 <표 3.1.>과 같으며, 이것과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서 모든 시제에서의 빈도수를 더한 값을 과거, 현재, 미래 시제 개수의 총합인 3으로 나눈 평균값과 2IMPF 형태를 기준으로 각 형태별 평균값의 비율을 계산한 것이 <표 3.2.>이다.

<표 3.1.> B그룹 동사들의 각 형태에 따른 시제별 빈도수 차이

	과거 시제	빈도수 차이	현재 시제	빈도수 차이	미래 시제	빈도수 차이
рвать	3,047	2.86	2,894	2.67	89	4.45
сорвать	4,186				679	
срывать	1,065	1	1,082	1	20	1
копать	1,113	6.28	806	3.6	66	
выкопать	731				121	
выкапывать	177	1	220	1	0	
брить	385	13.27	390	21.66	18	
сбрить	219				45	
сбривать	29	1	18	1	0	
мазать	594	6.45	529	5.68	19	19
намазать	285				88	
намазывать	92	1	93	1	1	1
полоть	131	11.9	13,395	558	7	
выполоть	22				14	
выпалывать	11	1	24	1	0	
кроить	171	3.48	124	2.63	11	11
выкроить	104				61	
выкраивать	49	1	47	1	1	1
клянить	155	5.96	107	10.7	9	
выклянуть	77				14	
выклянчивать	26	1	10	1	0	

<표 3.2.> B그룹 동사들의 각 형태에 따른 총 빈도수의 차이와 시제에 대한 평균값

	총 빈도수	총 빈도수 평균	빈도수 차이
рвать	6,030	2,010	2.78
сорвать	4,865	2,452.5	3.39
срывать	2,167	722.33	1
копать	1,985	661.66	5.00
выкопать	852	426	3.21
выкапывать	397	132.33	1
брить	793	264.33	16.87
сбрить	264	132	8.4
сбривать	47	15.66	1
мазать	1,142	380.66	6.13
намазать	373	186.5	3.008
намазывать	186	62	1
полоть	13,533	4,511	386.87
выполоть	36	18	1.54
выпалывать	35	11.66	1
кроить	306	102	3.15
выкроить	165	82.5	2.55
выкраивать	97	32.33	1
клянчить	271	90.33	7.52
выклянчить	91	45.5	3.79
выклянчивать	36	12	1

<표 3.1.>에 제시된 과거시제에서의 2IMPF와 1IMPF의 빈도수 차이에 대한 비율과 <표 3.2.>에서 제시된 전체적인 모든 시제에서의 평균 빈도수 차이에 대한 비율을 비교해 볼 때, 삼중쌍 полоть - выполоть - выпалывать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서 거의 이 비율의 숫자가 과거시제에서 비교한 비율과 전체적 평균으로 계산한 비율의 수치 차이가 3.5 이상인 경우가 없고 모두 1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적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과거시제의 빈도수 차이에 기반한 분류이지만, 이 분류가 полоть - выполоть - выпалывать 삼중쌍을 제외하고는¹⁸⁾ 코퍼스 내에서의 전체적인 빈도수 차이의 비율을 반

18) полоть - выполоть - выпалывать 삼중쌍의 일부인 동사 полоть의 경우 다른 동사들과 비교했을 때, 인칭변화 형태가 동사가 아닌 명사의 격변화 형태와 동일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인칭 단수 인칭변화형인 полю는 들판을 의미하는 поле라는 단어의 단수 여격 형태인 полю와 그 형태가 같고 1인칭 복수 인칭변화형인 полем도 역시 들판을 의미하는 поле라는 단어의 단수 전치격 형태인 полем과 형

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표에 나타나 있는 삼중쌍 동사들을 이루고 있는 1IMPf와 2IMPf가 실제 코퍼스에서 어떤 의미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번에도 НКРЯ에서 20단어를 사이에 두고 1IMPf와 2IMPf이 동시에 나타나는 맥락을 찾아 그 맥락 안에서 두 형태의 구체적인 의미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полоть - выпалывать, кроить - выкраивать, клянчить - выклянчивать는 20단어를 사이에 두고 나타나는 맥락이 코퍼스 상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мазать - намазывать, брить - сбривать의 경우 20단어를 사이에 두고 나타나는 맥락이 총 1개 발견되었고, копать - выкапывать는 총 2개의 맥락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3개의 맥락이 지닌 특징은, 1IMPf와 2IMPf의 의미가 어휘적으로는 동일하고 상적인 의미에서만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다. (예10)에서 копать는 지역 주민들이 보통 가을에 감자를 캐는 것을 의미하는 일반적 서술로서의 불완료상의 상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비해, выкапывать의 경우 감자를 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같으나 ‘필요한 양만큼(по мере надобности)’이라는 양화적인 서술과 더불어 앞에 копать 동사가 가지지 못한 ‘필요한 그 양만큼 캐는 것을 다 끝낸다’는 완료상 동사가 지니고 있는 상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예10) Апшеронская зима — это сплошные дожди, мокрый снег и слякоть.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например, не **копали** по осени картошку и не держали ее в погребах, а по мере надобности в течение зимы **выкапывали** с огородов. Тогда профсоюзы еще имели какое-то влияние в учреждениях и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например, они следили, чтобы всем

태가 동일하다. 3인칭 단수 인칭변화 형태인 полет도 비행을 의미하는 명사 полет의 주격 단수 형태와 동일하다. 2인칭 복수 인칭변화의 형태 полете 또한 비행을 의미하는 명사 полет의 단수 전치격 형태와 동일하다. НКРЯ는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형태만으로 빈도수를 체크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직설법 현재 동사로 맥락을 국한시켰다 하더라도 코퍼스에서는 명사 поле의 격변화 형태 또는 полет의 격변화 형태까지 포함시켜 높은 빈도로 함께 코퍼스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인해 полоть - выполоть - выпалывать 삼중쌍의 경우 다른 동사들에 비해 특별히 현재 시제에서 полоть의 빈도수가 выпалывать의 빈도수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날 수 있었으며, 이것이 전체 시제에 대한 평균값에도 영향을 주어 특별히 2IMPf의 쓰임보다 1IMPf의 쓰임이 월등하게 높게 나왔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рабочим и служащим обязательно ежегодно давали отпуска, а первый отпуск полагался через шесть месяцев после поступления на работу. [С. М. Голицын(1989) *Записки уцелевшего*]

압쇄론의 겨울은 끊임없는 강우와 젖은 눈 그리고 구질구질한 날씨의 연속이다. 예를 들어 이 지역의 주민들은 가을에 감자를 캐지도(копали) 지하실에 보관하지도 않았고, 겨울 동안에 필요한 양만큼 텃밭에서 캐내어 쓰곤 했다(выкапывали). 당시 노동조합은 여전히 공공시설들과 회사들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이들은 모든 근로자와 직원들에게 일년마다 반드시 휴가를 주도록 하고, 첫 휴가는 입사 후 6개월 후에 주도록 정했다.

한편 **рвать - срывать**의 경우에는 20단어를 사이에 두고 나타나는 맥락이 총 9개 발견되었는데 이들의 개별적인 맥락을 조사한 결과가 매우 흥미롭다. 이들 중에 4개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мазать - намазывать, брить - сбривать, копать - выкапывать** 동사들의 경우처럼 1IMP와 2IMP의 어휘적인 의미는 동일하지만 2IMP가 지닌 상적인 의미로 인해서만 의미 차이가 발생하는 맥락이었다(예11). 반면 나머지 5개의 맥락에서는 2IMP가 단지 상적인 의미 뿐 아니라, 어휘적으로도 다르게 보아야 할 정도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있었다(예12).

(예11) Все подняли воротники. Ветер раздувал юбки, **рвал** из рук пузатые зонты, **срывал** намокшие шляпы. Асфальт сиял сплошным озером. [С. Я. Эфрон(1925) *Записки добровольца*]

모두가 옷깃을 올렸다. 바람이 치마를 부풀렸고 평퍼짐한 우산들을 손에서 날리고(рвал) 축축해진 모자들을 날려 버렸다(срывал). 아스팔트는 끝없는 호수처럼 빛났다.

(예12) С крыши храма на женщин обрушиваются потоки краски, мужчины обливают друг друга водой, которую берут из расположенного здесь же резервуара. И вскоре мраморные плиты у храма превращаются в скользкую разноцветную лужу. Мужчины **срывают** с себя рубахи, женщины **рвут** их на куски и пускаются с ними в пляс. И кажется, что уже никогда не кончится этот разноцветный водоворот. [К. Зимбардо(2004) “Место красит человека”, *Парадокс*]

사원 지붕에서 여성들에게 다량의 잉크들이 떨어지고 남자들은 여기에 놓인 탱크에서 가져온 물을 서로에게 끼얹는다. 곧 사원의 대리석 판들은 미끄럽고 다채로운 색의 웅덩이로 변한다. 남자들은 자신의 셔츠를 벗어 버

리고(срывают), 여자는 그 벗겨진 셔츠를 찢어(рвут) 그것을 가지고 춤을 춘다. 내 생각에는 이미 이 울긋불긋한 색채들의 소용돌이는 절대로 끝날 것 같지 않다.

위의 (예11)에서 앞서 나타난 1IMPF рвать와 뒤에 나오는 2IMPF срывать는 문맥에서 ‘(바람 등이) 날려버리다’의 동일한 의미로 문맥에서 표현되고 있지만, 뒤에서는 2IMPF로 쓰이면서 앞에 나와 있는 рвать보다 좀 더 결과적인 의미가 강조됨으로 문맥 안에서 점층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예12)의 경우, 앞에 나온 2IMPF срывать는 ‘(옷을) 벗다’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뒤에 나오는 1IMPF рвать는 ‘(앞에서 벗어 버린 옷을) 찢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рвать - срывать는 코퍼스 내에서 어휘적 의미 차이가 나는 맥락과 상적 의미 차이만 나는 맥락이 섞여서 분포되어 있었다.

중도적 지위를 지닌 B그룹의 동사들의 경우, 20단어 사이로 제한된 조건에서 1IMPF와 2IMPF가 동시에 나타나는 맥락의 수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한 맥락에서 공존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2IMPF는 1IMPF와 어휘적으로 동일하고 상적인 의미 차이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B그룹 속에 있는 삼중쌍 рвать - сорвать - срывать의 1IMPF와 2IMPF가 순수하게 상적으로만 차이를 나타내는 것과 어휘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는 것은 주목해 볼 만하다. 모듈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언어의 속성으로 볼 때 рвать - срывать의 예는 (C그룹과 같은) 어휘적으로 분화의 경향을 보이는 동사들과 (A그룹과 같은) 상적 분화만을 보이는 동사들 사이의 연속적 스펙트럼을 표상하는 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결론: 결과 종합 및 연구의 함의

본 연구에서는 총 15개의 삼중쌍 동사들을 선정해 НКРЯ에서 각 형태에 따른 시제별 빈도수를 조사해 보았다. 특히 과거시제를 바탕으로 1IMPF와 2IMPF의 빈도수 차이에 기반해 세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에 해당하는 동사들이 문맥에서 나타내는 의미를 조사해 봄으로, 빈도수 차이와 2IMPF의 의미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15개의 삼중쌍 동사들의 시제별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개의 삼중쌍(есть - съестъ - съедать, полоть - выполоть - выпалывать)을 제외하고는 과거시제와 현재시제에서의 1IMPF와 2IMPF의 빈도수 차이는 서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미래시제에서의 빈도수 차이는 2개의 삼중쌍(есть - съестъ - съедать, клонить - склонить - склонят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IMPF가 코퍼스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더라도 다른 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적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Апресян(1995: 112)과 Петрухина(2009: 86)는 러시아어의 복합미래의 경우 진행(процессное), 비한정 반복(неограниченно-кратное), 그리고 일반사실적 의미(общефактическое)를 지니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Петрухина(2012: 96)는 동일 행위에 대해서 2IMPF는 항상 종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¹⁹⁾ 이를 통해 미래시제와 2IMPF의 형태가 서로 잘 조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비록 15개의 동사들만 가지고 빈도수를 조사한 것일지라도 위의 결과는 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더 많은 삼중쌍 동사들에 대한 빈도수 조사와 심도있는 분석을 추가한다면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1IMPF와 2IMPF의 빈도수 차이와 2IMPF의 맥락적 의미의 상관성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빈도수 차이가 적게 날수록 어휘적인 분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경우이고 빈도수 차이가 많을수록 상적인 의미 차이만 존재하는 전형적인 삼중쌍의 경우일 것이라는 가설에 따라 그룹화시켰다. 이 그룹들에 따라 이들 동사들이 나타내는 의미가 단지 상적인 의미차이로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어휘적으로 다르게 보아야 할 만큼의 의미차이를 지니는지 중점을 두고 맥락분석을 진행해 보았다. 그 결과, 상정된 가설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1IMPF와 2IMPF의 빈도수 차가 가장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그룹에 포함된 동사들은 총 5개였는데, 그중 2개의 동사들(читать - прочитать - прочитывать, есть - съестъ - съедать)은 이미 이주홍·홍택규(2021a)에서 1IMPF와 비교했을 때 2IMPF의 문맥상 의미가 상적 의미에 있어서만 의미차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3개의 동사들

19) Петрухина는 종결의 의미를 더해주는 к вечеру, полностью를 붙여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2IMPF만 가능하다는 것을 예를 들어 위와 같은 주장을 했다: Собранные листья мы полностью сжигали (*жигли). Всю картошку мы выкапывали (*копали) к середине сентября.

(хватать - схватить - схватывать, сморкаться - высморкаться - высмаркиваться, комкать - скомкать - скомкивать)의 문맥적 의미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комкать - скомкивать 동사가 동시에 나타나는 맥락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сморкаться - высмаркиваться 동사가 동시에 나타나는 총 1개의 맥락과 хватать - схватывать 동사가 동시에 나타나는 총 3개의 맥락 중 2개의 맥락에서 1IMPF와 2IMPF의 어휘적 의미가 동일했고 2IMPF는 상적인 의미차이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1IMPF와 2IMPF의 빈도수 차가 가장 적게 차이가 나는 그룹에 포함된 삼중쌍 동사들은 총 3개(делить - разделить - разделять, клонить - склонить - склонять, гибнуть - погибнуть - погибать)였다. 이들 동사들의 경우 모두 사전상의 기술에 있어 1IMPF의 의미와 2IMPF의 의미 기술이 완전히 동의어로 기술되어 있지 않았으며 후자의 경우 주로 1IMPF에서 파생된 추상적이거나 비유적인 의미로 기술되어 있었다. 이는 20단어를 사이에 두고 1IMPF와 2IMPF이 동시에 나타나는 맥락을 모두 조사해 이 둘의 의미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났다. 이들의 경우, 이미 2IMPF에 의해 의미가 설정된 맥락에서 무표향인 1IMPF가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중화의 용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1IMPF는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의미를, 2IMPF는 추상적이고 확장된 의미를 나타내고 있었다.

두 그룹 중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는 7개의 삼중쌍 동사들은 20단어들 사이에 두고 1IMPF와 2IMPF가 동시에 나타나는 맥락을 조사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맥락이 발견되지 않거나 또는 발견된다 하더라도 1개 또는 2개의 맥락만 발견될 뿐이었다. 그리고 이들 맥락에서 1IMPF와 2IMPF가 나타내는 의미는 모두 어휘적으로 동일하고 2IMPF는 순수하게 상적인 의미에서만 그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 7개의 삼중쌍 동사들 중 하나인 рвать - сорвать - срывать 삼중쌍의 경우에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들 중 4개의 경우는 1IMPF와 2IMPF가 모두 어휘적으로 동일하고 2IMPF는 순수하게 상적인 의미에서만 그 차이를 나타냈으나, 5개의 경우에는 2IMPF가 어휘적으로 다르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의미를 나타냈다. 하나의 형태에서 상적으로 파생관계를 이루고 있는 단어들이 맥락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상적인 의미만으로 차이가 나고 어떤 경우에는 어휘적으로 다르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의미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러시아어의 상이라는 범주가 온전히 문법적인 범주만이 아니라 어휘성과 문법성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어휘-

문법범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이런 관점에서 각 그룹에 해당하는 1IMPF와 2IMPF가 속한 그룹에 따라 의미 차이의 양상이 다르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는 러시아어에서 상의 삼중쌍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동사들이 어떤 경우에는 순전히 문법적인 상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휘적으로 분화되는 쪽으로 더 진행되기도 한 연속체라는 것에 대한 온당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는 분석된 삼중쌍 동사들과 예시들이 양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필자가 이전에 진행했던 공동연구에서 4개의 삼중쌍 동사들만을 가지고 러시아어의 상적 삼중쌍에 내재되어 있는 상적-어휘적 다양성을 밝힌 것에 더해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삼중쌍 동사들을 가지고 1IMPF와 2IMPF의 빈도수의 차이에 따른 맥락에서의 의미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러시아어 삼중쌍 동사들의 전체적인 의미분포와 그 양상을 거시적으로 조망해 보았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이주홍(2018) 「러시아어 미래시제의 상형태 빈도수: 어휘 의미와의 상호 연관성」, 『러시아어연구』, 제28권 제2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141-164쪽.
- 이주홍·홍택규(2021a) 「러시아어 동사 상적 삼중쌍 논의에 부쳐」, 『러시아어 문학연구논집』, 제74집, 한국러시아학회, 39-82쪽.
- _____ (2021b) 「гибнуть vs. погибать: 상적, 어휘의미적 특징들」, 『러시아학』, 제23호, 충북대학교 러시아-알타이지역연구소, 23-58쪽.
- 홍택규(2013) 「러시아어 동사 상의 범주적 속성: 유형론적 관점과 문법화를 배경으로」, 『비교문화연구』, 제33권,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461-494쪽.
- 홍택규(2016) 「Анна А. Зализняк & А. Д. Шмелёв의 러시아어 상 기술방법론 검토: 중화와 사건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제32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105-146쪽.
- Апресян, Ю. Д.(1995) “Трактовка избыточных аспектуальных парадигм в толковом словаре”,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Т. 2, М.: Язык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С. 103-113.
- _____ (1997) “Лексикографическая трактовка вида: нетривиальные случаи”, *Труды аспектологического семинара филологического факультета МГУ им. М. В. Ломоносова*, Т. 2,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МГУ, С. 7-20.
- Бондарко, А. В.(1971) *Вид и время русского глагола*, М.: Просвещение.
- Даль, В. И.(1863)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 Типография А. Семена.
- Зализняк, А. А. и А. Д. Шмелев(2000) *Введение в русскую аспектологию*, М.: Язык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 Зализняк, А. А. и И. Л. Микаэлян(2010) “О месте видовых троек в аспектуальной систем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онференция Диалог*, С. 130-136.
- Исаченко, А. В.(1960) *Грамматический строй русского глагола в сопоставлении с словацким. Морфология*, Ч. 2, Братислава: Изд. Словац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 Кузнецов, С. А.(2001) *Современный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 Норинт.

- Лотман, Ю. М.(1992) “Риторика”, *Избранные статьи: В 3 т., Т. 1: Статьи по семиотике и типологии культуры*, Таллин: Александра, С. 167-183.
- Маслов, Ю. С.(1948) “Вид и лекс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глагола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Известия АН СССР. Серия литературы и языка*, Т. 7, С. 303-316.
- _____ (1958/2004) “Роль так называемой перфективации и имперфективации в процессе возникновения славянского глагольного вида”,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Аспектология. Общее языкознание*, М.: Языки Славянской Культуры, С. 445-476.
- Ожегов, С. И. & Н. Ю. Шведова(1999)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 Азбуковник.
- Петрухина, Е. В.(2009) *Русский глагол: категории вида и времени (в контексте современных лингвист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М.: Филологический факультет МГУ.
- _____ (2012) *Аспектуальные категории глагола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в сопоставлении с чешским, словацким, польским и болгарским языками*, М.: Книжный дом ЛИБРОКОМ.
- Татевосов, С. Г.(2010) “Первичное и вторичное в структуре имперфективов”, *Acta Linguistica Petropolitana. Труды ИЛИ РАН*, Т. 4, Ч. 2, С. 299-321.
- Храковский, В. С.(2005) “Аспектуальные тройки и видовые пары”, *Русский язык в научном освещении*, № 9, С. 46-59.
- Anderson, H.(1989) “Markedness Theory – the First 150 years,” *Markedness in Synchrony and Diachrony*, Berlin: Mouton de Gruyter.
- Andrews, E.(1990) *Markedness Theory: The Union of Asymmetry and Semiosis in Languag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Janda, L. A.(2007) “Aspectual clusters of Russian verbs,” *Studies in Language*. Vol. 31, No. 3, pp. 607-648.
- Janda, L. A. & V. D. Solovyev(2009) “What constructional profiles reveal about synonymy: a case study of Russian words for sadness and happiness,” *Cognitive Linguistics*, Vol. 20, No. 2, pp. 367-393.
- Kuznetsova, J.(2015) *Linguistic profiles. Going from form to meaning via statistics*, Berlin: De Gruyter Mouton.
- Kuznetsova, J. & S. Sokolova(2016) “Aspectual triplets in Russian: semantic

predictability and regularity,” *Russian Linguistics*, Vol. 40, No. 3, pp. 215-230.

Nordrum, M.(2017) “The aspectual triplets of putat’: the Telicity Hypothesis and two ways to test it,” *Russian Linguistics*, Vol. 41, No. 2, pp. 239-260.

러시아어 국립 코퍼스(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рпу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НКРЯ):
<https://ruscorpora.ru>

Abstract**A Study on Frequency of Russian Secondary Imperfectives
Depending on Aspectual and Contextual Meaning****Lee, Joo-Hong***

This study examined 15 Russian aspectual triplets of verbs, exploring the frequency of each form in each tense in the Russian National Corpus. In particular, this study compared the differences in frequency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imperfectives in the past tense and divided the verbs into three groups accordingly. The meanings of the verbs in each group were examined in context to determine the semantic relationships of the meanings of the secondary imperfectives in the Corpus. This study thereby showed that, while the secondary imperfectives in Russian are derived from a perfective form, which is derived from the primary imperfectives, their meanings differ from the primary imperfectives only in aspect in most contexts when the difference in frequency is great. Conversely, when the difference is small, their meanings can be seen as being lexically distinct. Finally, this study comprehensively examined the lexico-aspectual semantic distribution of Russian aspectual triplets of verbs to provide a macroscopic view of Russian verbal aspect grammatically and lexically, confirming the existence of a simultaneous lexico-grammatical category.

Key words: Aspect, Russian Aspectual Triplet, Corpus Analysis, Frequency, Contextual Analysis, Lexico-Grammatical Category

* Lecturer in the Department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SungKyunKwan University.

이 주 홍

성균관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강사. 성균관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석사를 졸업하고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에서 “러시아어의 미래시제: 상과 양상의 상호작용”이라는 주제로 러시아 언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관심 영역은 러시아어 동사의 시제와 상과 관련된 형태·의미론이다. 최근 연구 논문으로는 「러시아어 미래시제의 상형태 빈도 수: 어휘 의미와의 상호 연관성」, 「러시아어 동사 상적 삼중쌍 논의에 부쳐」, 「гибнуть vs. погибать: 상적, 어휘의미적 특징들」이 있다.

Lee, Joo-Hong

Lecturer in the Department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SungKyunKwan University. He majored in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SungKyunKwan University. He received Ph.D. in Russian Linguistics at Moscow State University. His doctorate thesis is “Future Tense in Russian Language: Interaction between Aspect and Modality.” His main research interests include semantic and morphological analysis on interrelationship between tense and aspect of Russian verbs. His most recent articles are “Frequency of Russian Future Tense Forms According to Aspect and Lexical Meaning,” “Adding to the Discussion about Russian Aspectual Triplets,” “Gibnut’ vs. Pogibat’: Aspectual, Lexico-semantic Characteristics.”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22. 4. 1
논문심사일:	2022. 4. 19 ~ 2022. 5. 8
심사완료일:	2022. 5. 8